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슈

●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

지금 조합은

● 서울인쇄조합 제62회 정기총회

● 서울·경기·인천 지역 인쇄조합 업무협약

03

2024 | Vol.436

종이로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연합지류와 함께 해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특화된 제지 유통 서비스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쟁력



대표전화
02-2265-3100
unpapertop@naver.com



(주)연합지류유통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6길 40(연합B/D)
Fax: 02-2272-5775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 보유인쇄기종**
- RY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KYUNG SUNG 경성문화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Kprint 2024

2024
8.21 수
~ 24 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Since 1978

KIPES

27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7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출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www.kprint.kr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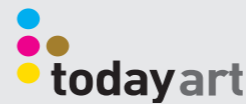


08



12

발행일	2024년 3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혜성, 류윤현, 목영만, 채연화
실무	사업홍보팀(오혜경, 남영복) ☎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스넷근아 /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 02-2265-6119



※ 인쇄제널의 인쇄 및 용지 제공은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중구청에서 시청 앞까지 펼친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땅의 가치는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 보상은 건설업자가 아닌 만든 사람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Contents

2024 | Vol.436 **03**

06	이슈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
08	지금 조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인쇄조합 제62회 정기총회 서울인쇄조합, 탐나라공화국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기·인천 지역 인쇄조합,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12	편집	인쇄산업의 올림픽, '독일 드루파 2024' 5월 개최
14	리포트	인쇄산업의 미래를 다시 한번 낙관하는 이유
16	업계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인쇄조합, 202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인쇄연합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 제76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인쇄기준가격제도화 4차 간담회 개최 '후지필름BI DX 크루' 캐릭터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서울시 5대 제조 소공인 활성화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조합원사 변동
20	제품소개	코닥, PRINERGY INSITE Portal 버전 10.0 출시



비 내리는 악천후에도 중구청 앞에서 인쇄인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는 인쇄인들



김윤중 이사장은 이날 세운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따른 인쇄인 생존권 보장 요구서를 서울시와 중구청에 직접 제출했다.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 세운재개발로 산업 터전 쫓겨날 위기...

300여 인쇄인 중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중,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지난 2월 21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중구청 앞에서 집결해 서울시청까지 거리 행진한 이번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인쇄 및 시민단체 300여 명이 참석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도심산업인 인쇄산업의 재정착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지하 1~3층을 인쇄단지로 개발 요구

인쇄산업은 서울시 5대 도시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중 하나로 인쇄공정별 전문화 및 상호 협력·집중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인쇄업계는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신성상가와 진양상가 지하 1, 2, 3층을 인쇄단지로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중구 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해줄 것을 서울시와 중구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와 인쇄스마트앵커 취지대로 건립 요구

또한, 기수립되었으나 이번 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빠진 서울메

이커스파크(SMP지식산업센터)와 인쇄스마트앵커에 대해서도 원래의 취지대로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는 600년 전통의 인쇄문화산업 최대집적지인 중구의 5,500여 인쇄업체와 문화산업이 협업하는 층무로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인쇄스마트앵커는 특히 투자심사, 중앙 투자심사를 모두 거쳤고 국비, 시비 보조금과 SH공사의 투자계획도 확정,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SH공사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까지 최종 완료한 사업이었다.

더욱이 인쇄스마트앵커는 중구청에 기부채납된 부지로 을지로~충무로 일대 집적지의 특성과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산업 지원시설이므로 계획대로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인쇄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서울시 계획한 공공임대상가, 인쇄인 수요에 턱없이 부족

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 공청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1단계 기수립된 629호(공구상가 시설)를 포함, 총 847호의 공공임대상가로, 인쇄업체를 위한 시설계획은 220여 호뿐으로 인쇄인들 수요(800호 이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운지구 6구역에는 1,429개(서울시 자료)의 인쇄업체가 생업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고, 인쇄업은 도심에 적합한 제조산업이므로, 재개발 이후에도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인



김윤중 |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공공임대사업장을 개발해 소상공인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여한균 | 조양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우리의 모든 삶이 녹아든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전준호 | 카오스넷근아 대표

“신성상가와 진양상가 개발 시 지하 1~3층을 인쇄단지로 제공하라”



이태영 | 젤기획 대표

“서울메이커스파크와 인쇄스마트앵커를 원래 취지대로 건립하라”



모종근 | 대광그래픽스 대표

“오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채택한 결의문대로 인쇄인의 생존권 보장하라”



한대식 | 산림동상공인회 회장

“인쇄인의 의지와 절박함을 보여줘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종건 | 을지OB베어대책위원장

“을지로 인쇄인, 디자이너가 더 뭉치고 연결해 우리가 을지로임을 알려야 한다”



박은선 박사

“이 땅의 가치는 여기 일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보살 또한 만든 사람들 뭉이다”

쇄업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임대 사업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쇄인들은 세운지구 재개발로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1,429개 인쇄 소상공인들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800호 이상³⁾)의 공공 임대사업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청과 서울시에 생존권 보장 요구서 전달

김윤중 이사장은 이날 집회에서 “중구는 인쇄거리에 30만 제곱미터를 인쇄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진흥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서울메이커스파크 계획과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사업도 백지화됐다”고 했다. 특히 “세운재정비촉진계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산업 클러스터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인쇄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쇄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서울메이커스파크(SMP)는 현 중구청사 부지에 연면적 약 8만㎡,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인쇄산업지원센터, 층무아트센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 도심산업 지원·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계획되었다.
2) 인쇄스마트앵커는 중구 충무로-을지로 일대의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장비 공동사용·R&D 및 인력 양성 등 인쇄 관련 기술과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3) 800호 이상 근거 : 1,429업체×65%(2020.중구청 조사, 6-4구역 인쇄업체 대상 재정착 희망업체 수)

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산업 클러스터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인쇄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쇄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쇄업계는 이주단지 먼저 조성,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공공임대 이주단지 지하시설 건립, 인쇄스마트앵커·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기부채납 부지에 인쇄인 이주단지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진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집회 시작과 끝에 각각 중구청과 서울시 관련 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포상자 사진 QR

포상자 명단

훈격	소속	직위	성명	내용
이사장	(주)청아디엔피	대표이사	김남수	공로패
	송죽문화사	대표	장세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부장	정은희	감사패
	(사)농민신문사 CP사업부	부장	강혜영	
	(사)농민신문사 금융장표부	부장	함장훈	
서울특별시장	삼원인쇄사	대표	김응영	
	거목정보산업(주)	대표이사	윤석철	
	아트프린팅(주)	대표이사	임영철	
	(주)동부피엔비	대표이사	정성기	
서울시의회 의장	(주)티오피폴리컴	대표이사	정찬민	
	삼아인쇄사	대표	김상호	
	대광그래픽스	대표	모종근	
	(주)제이스타 메니지먼트솔루션	대표이사	안영주	
	한양에드	대표	최영식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경남인쇄사	이사	김현식	우수 경영자
	(주)두성	대표이사	김민수	
	시온정판인쇄사	대표	김의식	
	폰트랜드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대표	박용욱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예성디엔피	대표	김종욱	
	(주)소문사	대표이사	박성구	
	(주)플래너씨엠	대표이사	이원석	
	(주)선명제본	대표이사	지성택	
서울지방조달청장	명보사	대표	정일례	
	(주)미디어플러스넷	대표이사	김치국	
	(주)도야	대표이사	이용기	
중앙회장	인성기획인쇄	대표	진용연	
	삼성아이엔비(주)	이사	민찬기	
	(주)에지컴	대표이사	박순옥	
연합회장	그레이스	대표	양혜경	모범 조합원
	삼우기획	대표	김찬희	
	(주)진프로세스	대표이사	고성진	
이사장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박선영	모범 사원
	(주)보성프린테크	대표이사	엄지영	
	광범기획	실장	홍석진	
	(주)효성문화	이사	박판열	
	문덕인쇄(주)	과장	주이순	
	명문인쇄공사	부장	임득규	
	예성디엔피	부장	김종현	
경남인쇄사	공장장	김종학		
(주)삼원프린테크	이사	윤달남		

쇄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 큰 성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 안건으로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결의안 등 9개의 안건이 상정, 가결했다.

2024 조합 주요사업 계획

- 인쇄인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조합**
 - 인쇄 기준요금 정착
 -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
 - 인쇄인 생존권 수호활동 본격화
 - 조합의 힘은 사람, 1000사 조합원 만들기
 - 소통과 참여로 조합원 역량 강화(총회, 경영자세미나, 임원워크숍, 부회운영)
 - 조합원 경영 고충 상담
- 다양한 마케팅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조합**
 -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 협동조합간 협업 활성화
 - 국내외 산업 전시회 참여로 판로개척
 - 인쇄대상 & 인쇄문화 축제 부활
 - 조합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발간사업 (컬러수첩 제작, 인쇄저널 증면, 판매용 고급달력 제작)
- 인쇄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조합**
 - 서울인쇄센터를 소공인 최고의 도우미로 운영
 -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관리업체 공모신청
 - 기술창업실 운영 활성화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도우미 사업
 - 인쇄학과 학생 해외 연수 추진
 - 인쇄산업의 미래,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서울인쇄조합 제62회 정기총회
합심해서 현안해결에 총력 기울이자!

인쇄인 생존권 수호대책 논의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김윤중)은 제62회 정기총회를 지난 2월 21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대책을 논의하고 총회가 끝난 후 중구청 앞에 집결해 서울시청까지 거리시위를 진행하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함께 추진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과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쇄문화 산업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쇄문화산업진흥조례를 제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옥재은 시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올해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오후 인쇄업계의 생존과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며 “조용히 있다면 우리 인쇄업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므로 오늘 단채행동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다.

김윤중 이사장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줄길 바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정환식 부장은 김기문 회장 측 사 대독을 통해 “올 한해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에서 배제되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국인력정책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박래수 회장도 “서울인쇄조합이 서울인쇄센터의 운영권을 다시 찾아오고 연합회에 함께 인쇄기준가격을 물가정보지에 등재한 것은 김윤중 이사장의 남다른 노력과 조합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한 “세운지구 재정비계획에서 인쇄인을 위한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김윤중 이사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서울인쇄조합의 '경험은 미래로! 조합은 하나라'라는 슬로건처럼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



서울인쇄조합, 탐나라공화국과 업무협약 체결 인쇄, 디자인 상호 협력 논의



서울인쇄조합과 탐나라공화국의 MOU 협약 후 기념촬영(좌부터 김병수 조합 신임상무, 강우현 대표, 김윤중 이사장)



합동MOU 모습

인쇄문화 보급 확산에 상호 협력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2월 22일 탐나라공화국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남이섬 성공신화를 이끈 강우현 대표가 제주시 한림읍에 조성한 탐나라공화국이 한국 최초의 평생교육공원을 개원함에 따라 70여 개 연구소, 단체, 기업 등과 업종이나 규모를 넘어 실질적인 협업과 업종 간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합동MOU 협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윤중 이사장**은 축사에서 “강우현 대표는 우리 인쇄업계와도 각별한 인연을 통해 올해 서울인쇄조합의 캘린더에 작품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경영자세미나에서는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 인쇄업계에 강렬한 상상의 날개를 심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인쇄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탐나라 평생교육공원 교육문화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우현 대표**는 “이번 합동MOU는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크로스워킹을 통한 융합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쇄는 다양한 업종과 협업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한 업종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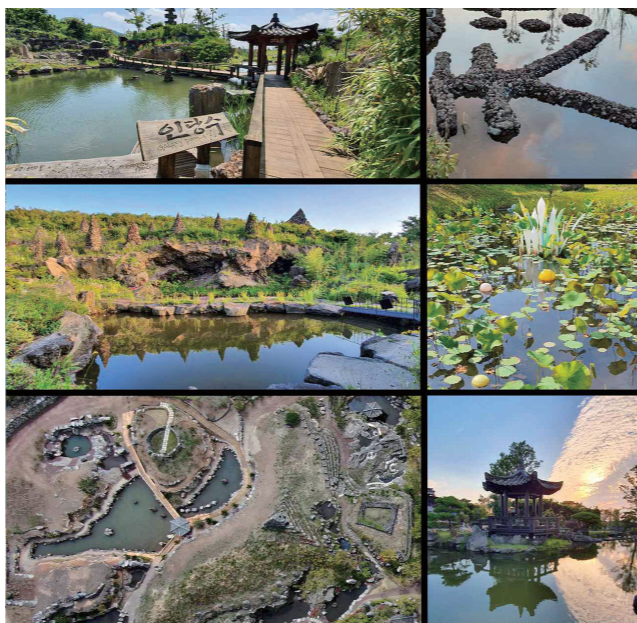
창조혁신과 교육체험 공간 구성

탐나라공화국은 2014년 2월 21일부터 10년 동안 황무지에 숲과 연못 등 인공자연을 조성하면서 상상을 실현해 온 미니국가이다.

정부 지원과 외부투자 없이 역발상과 독창적인 업사이클 아이

디어로 조성된 탐나라공화국은 창조혁신과 교육체험 공간으로 평생교육원을 개원함으로써 10만 평방미터의 부지 전체를 ‘평생교육공원’으로 명명하였다. 강 대표는 “관광은 문화로 향유하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유일의 교육관광지인 탐나라공화국은 자연과 과학 및 예술문화를 아우르는 교육과 체험 생태공원으로 후세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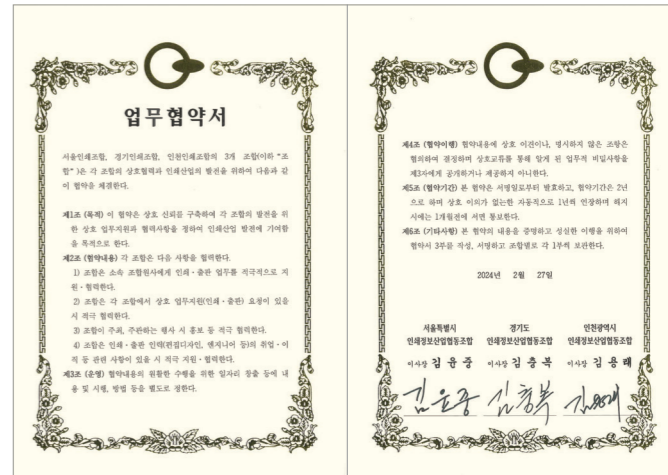
제주탐나라공화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897
전화번호 : 064-772-1878 / www.jeutamnara.com



서울·경기·인천 지역 인쇄조합,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계의 상호 성장과 발전 기대



(좌측부터) 인천조합 김용래 이사장, 서울조합 김윤중 이사장, 경기조합 김충복 이사장



향후 전국 인쇄조합 참여해 화합, 발전 기대

서울인쇄조합, 경기인쇄조합, 인천인쇄조합이 상호 업무협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2월 27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인쇄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인쇄조합 **김윤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이 조합 간 상생협력과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는 전국의 인쇄조합이 참여해 화합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인쇄조합 **김충복 이사장**은 오랜 꿈이었던 각 조합에 디자인실을 구축하여 모든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인쇄조합 **김용래 이사장**은 수도권 지역의 조합과 대학 등이 협업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편집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등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과 이직, 일자리 창출에도 협업 범위 확대

이번 3개 조합의 업무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업무지원과 협력 사항을 강화하고,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각 조합은 소속 조합원 사에게 인쇄 및 출판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행사 등의 주최·주관 시 홍보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는 인쇄·출판 분야의 취업과 이직, 일자리 창출에도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인쇄조합원사는 서로 협력하면서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쇄산업 재도약, 지속가능을 위한 솔루션 한자리에 인쇄산업의 올림픽, '독일 드루파 2024' 5월 개최

drupa 2024



- ☑️ 코로나 이후 8년만... 전 세계 인쇄업계 기대감 고조
- ☑️ 50개국 1,828개 글로벌 리딩 기업, 스타트업 대거 참가
- ☑️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초점 맞춘 다채로운 포럼, 컨퍼런스 행사 진행

코로나 이후 8년만... 전 세계 인쇄업계 기대감 고조

인쇄산업의 구원투수로 drupa(이하 드루파) 전시회가 코로나 이후 8년만에 등판한다. 드루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하는 인쇄기술 전시회로 올해 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다. 4년 개최주기로 인쇄업을 선도하는 기술 및 제품이 대거 출품하기에 드루파는 인쇄업계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디지털'과 '지속가능성' 차세대 기술 집결지

올해 전시회 대주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이다. 차세대 인쇄기술, 재활용·업사이클링, 자원효율, AI 접목 등 인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다양한 솔루션이 첫선을 보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해외 비중 80%, 글로벌 인쇄 기업 총출동

전시회 참가사 해외 비중은 80%로 최고의 국제성을 자랑한다. 독일,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미국, 일본, 인도 등 50개국 1,828여개사가 참가한다. 현장에서 혁신기술이 시연되는 유일한 전시회이며, 독일 메세 뒤셀도르프 전관을 사용해 순 전시면적만 158,237㎡ 규모로 개최된다.

주요 해외 참가사로는 하이델베르크, HP, 코닥, 엡손, 캐논, 듀폰, 후지필름, 헨켈, 코닉앤바우어, KURZ, 고모리, 코니카미놀



타, 리코 등이 있으며, 홀별 주요 기업 정보는 라인메세 홈페이지 내 전시회 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www.messe.co.kr)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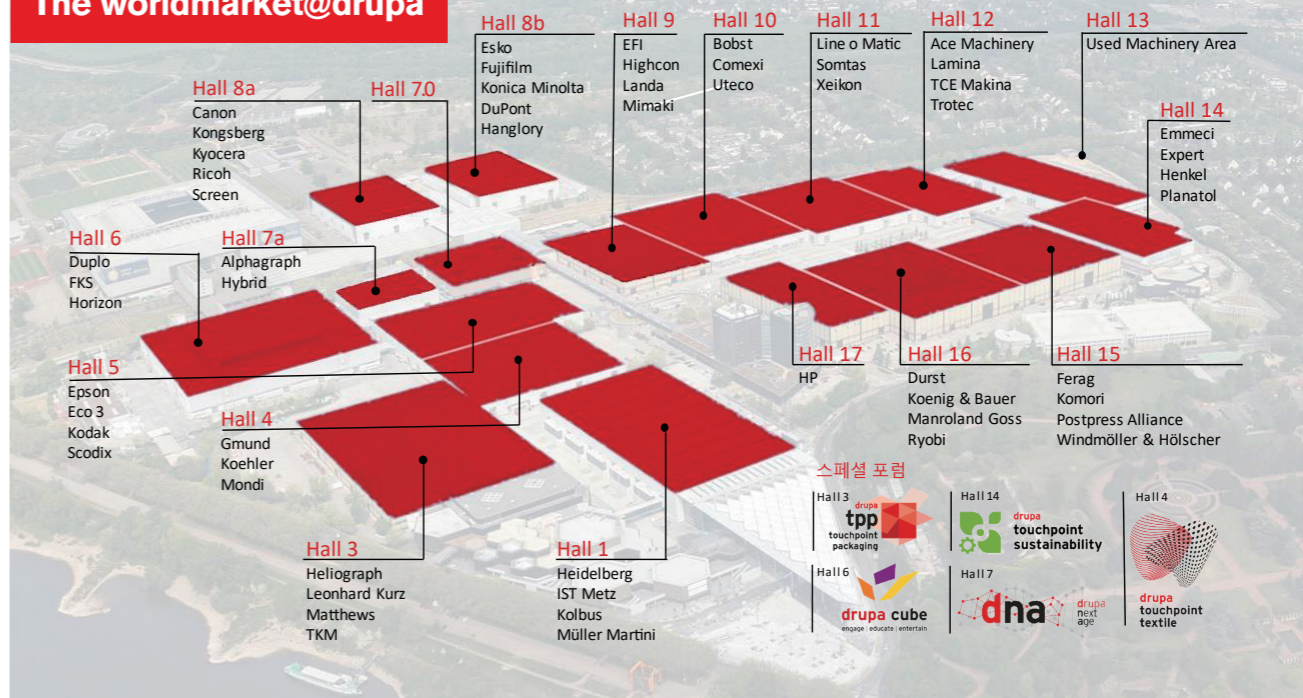
에이스기계, 딜리 등 25개 국내기업 참가

국내에서는 에이스기계, 딜리, 광명인크, 서울디앤에스, 타코플러스, 코인텍, 해튼상사, 명신물산 등 25개 기업²⁾이 참가한다. 국내 기업은 프리프레스, 후가공·컨버팅·패키징, 재료, 기기·인프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한다. 사이트 내 'Exhibitors & Product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시 전체 기업/제품 확인 및 동선 계획도 가능하다.³⁾

포장, 섬유, 지속가능성, 스타트업 등 5개 테마별 특별행사 진행

올해 역시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통찰력을 제공할 다양한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 산업 혁신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drupa cube', 신생기업들의 번뜩이는 아

The worldmarket@drupa



독일 메세 뒤셀도르프 전관 50만평 규모에 50개국 1,8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이디어가 돌보일 'dupa next age(dna)',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이는 '패키징 터치포인트', 섬유 마이크로 공장 설치를 포함하는 '텍스타일 터치포인트',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테마를 소개하는 '지속가능성 터치포인트'까지 5개 테마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모든 포럼 및 컨퍼런스 연사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루파 전시회는 홈페이지 www.drupa.com에서 입장권 구매 후 관람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 및 관람 문의는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세로 연락하면 된다.(info@messe.co.kr, 02-798-4343)

서울인쇄조합 드루파 참관단 모집

서울인쇄조합은 다양한 인쇄관련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세계 시장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참관단을 모집(3.15일까지)하고 있다.⁴⁾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spiic.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드루파 주요 정보 안내¹⁾
- 참가사와 방문객을 위한 알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참가사 리스트²⁾
- 총 24개 한국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가사 검색³⁾
- 품목별, 홀별 전시사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인쇄조합 참관단 모집 신청⁴⁾
- 인쇄단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참가하세요.



드루파 소개 동영상
- 국문 자막으로 이번 전시의 트렌드를 한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산업의 미래를 다시 한번 낙관하는 이유

인쇄만의 강점은 계속 유지된다!

출처 | FIPP NEWS

영국인쇄산업연맹(British Printing Industries Federation, BPIF)의 CEO 찰스 제럴드는 영국 인쇄산업의 현황을 진단해 달라는 요청에 자못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제시한다.

“지금 영국에는 유럽 전역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수의 인쇄 회사가 있습니다.” BPIF는 영국 인쇄업계의 대표적 직능 단체 중 한 곳이다.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은 늘 있지만, 영국 인쇄산업의 전반적인 활력과 위상만큼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규모와 외형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인쇄산업은 아직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등장과 함께 인쇄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 인쇄업계는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가 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 인쇄산업은 충분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쇄업계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기간에 제럴드와 BPIF는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인쇄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부단히 대변해 왔고, 또 BPIF 회원 기업의 인사 및 교육 문제와 보건 및 안전 법령 준수 문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활동 등도 지원해 왔다.

FIPP가 인터뷰를 위해 제럴드를 찾아갔을 때 그는 런던에서 열린 ‘파워 오브 프린트(Power of Print)’ 컨퍼런스의 기조연사로 참석하여, 몇 해 전부터 인쇄산업의 발목을 잡아 온 문제들과 전망에 관해 설명하는 중이었다.

2020년 16%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인쇄업계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7%와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인쇄업계의 매출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1%에서 2% 정도 감소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상태, 즉 ‘뉴노멀(New Normal)’의 단계로 다시 진입하게 될 겁니다.”라고 제럴드는 설명한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인쇄업계에서는 기나긴 구조 재편 과정이 진행됐고, 이러한 구조 재편은 인쇄업계의 전반적인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인쇄산업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둘째,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된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자본 조달 비용은 제로였고 금리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으며, 물가는 다행히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절반이나 깎아 주는 세상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뉴노멀의 시대에는 자본을 조달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 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성장통

인쇄업계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문제들이다. 예컨대 에너지 및 종이 가격 인상과 공급 문제 등 현재 BPIF의 회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 온 문제가 아닌, 그보다 훨씬 앞서 5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제럴드는 인쇄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인재 채용과 인재 유지라고 지적한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더는 유럽의 인재풀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제럴드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쇄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재를, 구체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이들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한 젊은 이들이 첫 직장으로 인쇄업을 선택하고 이 일에 계속 몸담게 하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복잡하고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BPIF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 대학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 가상 대학에서는 영국의 인쇄 및 포장 회사에서 일할 수습생 400여 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 부서가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수습생들을 교육한다. 400여 명의 수습생 중 절반가량은 인쇄 관련 직업 교육을, 나머지 절반은 고객 서비스를 비롯한 업무 처리 교육을 받고 있다.

“‘인쇄업계의 일원이 된다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커리어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BPIF에서 제공하는 이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쇄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PIF는 인쇄 회사들이 대학 및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쇄라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만을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데도 분명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과 잡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인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고 직업 선택의 기회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인쇄물의 독보적 특성

제럴드는 앞으로도 인쇄물 형태의 잡지와 신문은 변화하는 인쇄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조화롭게 공존하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

그는 “인쇄물은 디지털 미디어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쇄물과 디지털 미디어는 조화를 이루며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쇄물은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선, 인쇄물은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집

으로 배송된 잡지나 인쇄물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따로 보관합니다. 주방 한 칸에 두기도 하고 거실 소파에 비치해 놓기도 합니다. 늘 우리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대중지나 전문지를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을 수없이 검색하고 리뷰를 찾아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생겨나 그 물건에 푹 빠지게 되면 전문가용 계간지를 찾아 구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 형태의 잡지는 근사한 사진에 선명한 활자, 미려한 종이질에 뛰어난 편집까지 디지털 미디어와는 차원이 다른 상품입니다. 이런 인쇄 매체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잡지 시장에서 인쇄물이 소비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인쇄물이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중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안에서 인쇄물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인쇄물이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오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친환경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에 인쇄매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럴드는 지적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쇄업계에는 환경을 옹호하는 이익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고 이들은 인쇄업계가 친환경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긍정적인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라고 제럴드는 설명한다.

“세상의 통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쇄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이며 종이 역시 매우 지속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알려 나가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럴드는 인쇄산업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인쇄물이 가진 강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매체는 오직 인쇄물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매체는 인쇄물을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제럴드는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인쇄물의 이러한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인쇄물의 강점을 심본 활용할 수 있을 때 인쇄산업은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인쇄산업의 미래 - 미디어 믹스의 시대와 잡지의 역할 규정

인쇄산업은 매출 감소와 종이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당면한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쇄물이 여러 미디어 기업의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서울인쇄조합, 202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총회 및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결기대회 진행사항 논의



서울인쇄조합 202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6일(화) 호텔P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조합 제6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도 주요 사업성과 보고와 총회 부의안건 의결이 있었다.

김윤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도 조합 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은 최대한 감액하였고 조합건물 임대료 인상, 협업사업, 경쟁청구사업, 캘린더 제작 등을 통해 예산 증액으로 편성하였다”며 “2024년도 조합의 첫 이사회인 만큼 조합 운영의 마중물이 된다 생각하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시장 앞까지 시가행진을 하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결기대회를 진행, 이를 통해 인

쇄인들의 단합된 의견을 주장하여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와 총회 부의안건, 이사회 부의안건 등 총 11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마지막 제11호 의안인 조합 상무이사 추천 결의안에서는 서울인쇄조합 제30대 신임상무에 김병수 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을 추천, 2월 8일자로 선임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병수 신임상무는 “이사장님을 도와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활발한 교류와 지도편달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윤중 이사장은 “김병수 신임상무가 우리 업계의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중소기업의 어려움 헤쳐나가는 데 중앙회가 앞장설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제62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중소기업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뜨거운 관

심을 담아냈다. 이어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62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중앙회와 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인쇄연합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인쇄단가표 활용 위해 동참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박래수)의 제62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8일 호텔P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렸다.

박래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전국 회원조합과 함께 부단히 노력, 인쇄기준가격표를 10월부터 물가자료에 등재시켰다”며 “올해는 이 가격표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캠페인도 회원조합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인쇄기준가격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가 6월말 나오면 공공기관에서 인쇄단가표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의안은 제5호 의안 규약 일부 개정 결의안(특별회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회장 매월 100만원, 이사와 감사 매월 10만원, 공동구매수수료 징수를 25% 이내로 함)을 비롯한 6개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연합회 제62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 우수조합 부문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태영문화사&정동CTP 박춘희 대표 △오름출판문화사 정은아 대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준호 상무이사
- 중앙회장상 : △(주)상림크리에이티브 우영훈 대표이사 △유림씨앤피서동열 대표 △㈜이레프로 김인섭 대표이사
- 협동조합 육성공로 부문 :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희옥 과장
- 관계기관 유공 부문 : △(사)한국물가협회 김영방 물가조사부장 △한솔피앤에스주식회사 고정환 대표이사 △주식회사 더 성도 이성원 부장



포상자 사진
바라가기

대한인쇄문화협회 제76회 정기총회 개최

인쇄문화진흥재단 활성화 최선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의 제76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 호텔P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렸다.

김병순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협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인쇄진흥재단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관 단체들과 공조해 인쇄물 제값받기 활동 전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확대 방안 등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회원들의 애로가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인쇄업계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모두 원안 처리되었으며 총회 개최에 앞서 인쇄업계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시장식에서는 원종철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삼원인쇄) 대



표이사 회장이 공로패, 김유석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주) 대표이사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문정현 ㈜갑우문화사 제조본부 팀장을 비롯한 12명은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지역 인쇄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인쇄센터의 제1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올해 서울인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날 참석한 김윤중 이사장은 “서울인쇄센터는 그동안 서울인쇄조합이 창설하고 활성화시킨 곳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다른 곳에서 운영하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우리 조합이 운영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서울인쇄센터가 서울지역 인쇄인들의 바로잡이가 되어 서울은 물론 전국 인쇄문화산업이 더욱 활성화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태영 운영위원장 역시 “이번에 서울인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통해 서울지역 인쇄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사업을 영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쇄센터의 운영위원은 △김민수 (주)두성 대표이사 △모종근 대광그래픽스 대표 △목영만 명문기획 대표 △엄지영 (주)보성프린테크 대표이사 △이강훈 (주)태산인디고 대표이사 △이태영 젤기획 대표 △전준호 카오스넷근아 대표로 구성, 서울인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인쇄기준가격제도화 4차 간담회 개최

인쇄단가표 활용 위해 관계기관 요청 및 간담회 진행



‘후지필름BI DX 크루’ 캐릭터 공개

캐릭터 4종 통해 고객 소통 강화 나서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대표 하토가이 준, 이하 한국후지필름BI)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브랜드 공식 캐릭터 ‘후지필름BI DX 크루’를 공개했다.

‘후지필름BI DX 크루’는 키덜트(Kidult) 문화 확산으로 브랜드 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행복경험(CHX)’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정체성을 보다 친근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인쇄기준가격제도화 4차 간담회가 지난 2월 7일 서울인쇄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인쇄조합에서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한 각부 간사장 등 조합 실무자 10여 명과 연합회 박래수 회장과 전무, 그리고 연구수행자로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김법연 교수, 도영호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쇄기준가격을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을 2024년 2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물가자료에 게재되고 있는 인쇄단가표가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후지필름BI DX 크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직원들의 공모를 받아 캐릭터별 이름을 결정했다.

‘후지필름BI DX 크루’는 다양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후지필름BI의 가치를 담아 직장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직급별 캐릭터 4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5대 제조 소공인 활성화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김윤중 이사장, 중구 소재 인쇄업체 공공임대 요청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지난 2월 19일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주최한 서울시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9일 1차 간담회에 이어 2차로 개최된 간담회로 서울시 5대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수렴과 제조 소공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번 2차

간담회에서 제조 소공인들은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각 업종별(기계금속,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수제화)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재정비축진 변경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인쇄업체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는 220호에 불과해 세운재정비구역 안에 있는 1,429개의 인쇄업체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800호 이상을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중구 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인쇄지식산업센터인 서울메이커스파크와 지원시설인 인쇄스마트앵커 시설을 계획대로 건립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차 간담회에 이어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2차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의 의견을 듣고 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서울인쇄조합 30여 회원사 참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매곡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인쇄조합 30여 회원사는 국회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대표이사 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사례도 있다.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사항
월드지앤피(주)	중구 필동로 37, 지하1층(필동3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48-10(오산리)	주소

결혼

- 서원디지털프린팅 이석용 대표의 딸 소희양이 더뉴컨벤션웨딩홀 르노브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주)보현도탈프린팅 신원균 대표의 딸 현경양이 N웨딩홀 5층 미엘르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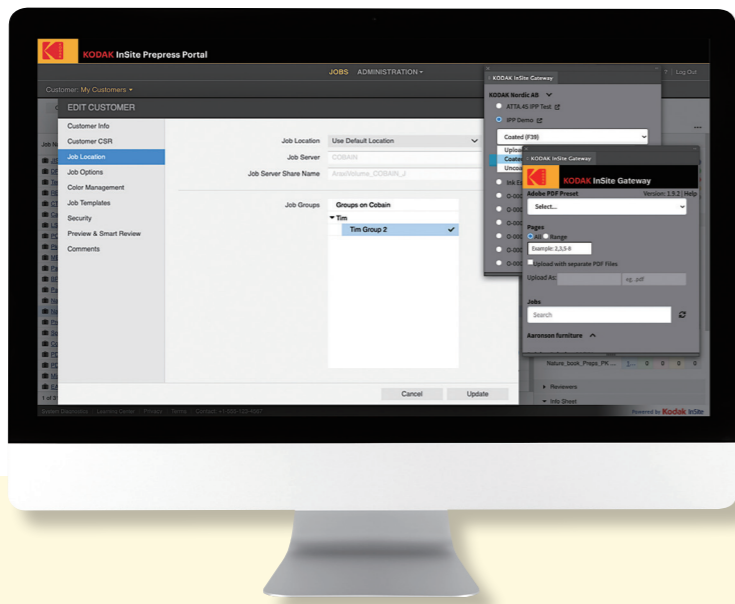
부고

- 인성기획인쇄 진용연 대표의 빙부께서 1월 29일 별세했습니다.
- 신영문화기획 정영주 대표의 부친께서 2월 7일 별세했습니다.
- 해외정판사 박진호 대표의 부친께서 2월 10일 별세했습니다.



코닥, PRINERGY INSITE Portals 버전 10.0 출시

24시간 접속 가능한 웹기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



코닥이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PRINERGY INSITE Portals 10.0 버전을 선보였다. 이 웹 기반 솔루션은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365일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과 기능을 제공한다. PRINERGY INSITE 프리프레스 포털과 PRINERGY INSITE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성이 향상되었다.

새로운 기능 및 업그레이드

- **협업 Job Group 리스트 개선:** IPP에서 협업 Job Group 리스트로 의 스크롤을 줄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
- **PRINERGY INSITE 프리프레스 포털:** 인쇄 회사와 고객은 작업 제출, 진행상황 추적, 협력 및 작업 교정, 승인 가능
- **PRINERGY INSITE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 엄격히 관리되는 작업 기반 프로세스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콘텐츠의 생성, 리뷰, 개정, 승인, 자산 관리를 지원

보안성 강화

- **로그인 이중 인증:** 사용자의 데이터와 개인식별정보(PII)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안 기능

- **OAuth for Microsoft Office 365:** IPP와 ICW에는 Microsoft Office 365용 OAuth가 탑재되어 있어 보안성이 강화
- **전체적으로 강화된 보안성:** 악성 공격을 방지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플러그인 기능 강화

- **INSITE 게이트웨이 플러그인:** ADOBE Creative Suite와 PRINERGY INSITE 프리프레스 포털을 직접 연결하여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PDF 파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IPP 서버의 작업으로 전송 가능

코닥의 메시지

코닥의 IT 구현 최고 책임자, 짐 반스는 “PRINERGY INSITE Portals 버전 10.0의 출시로 코닥 PRINERGY 플랫폼은 현재 최신 상태로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인쇄 회사는 높은 성능을 통해 고객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인프라의 보안을 향상시켜 고객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와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코닥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e create
the future



drupa 2024는
어디서?!

8년만에 개최되는
drupa 2024

남강항공과 함께 가시죠!



drupa 참관 안내문 보고 신청하기!

충무로의 새로운
랜드마크

솔라고 명동

호텔 & 레지던스

8 타입, 480 객실

카페파스쿠찌 (190석) | 뷔페레스토랑 (194석) | Fitness Center | GDR 골프 아카데미 (36타석) | 스크린 골프 (13개틀)



데모센터 오픈

01



다양한 샘플
출력 가능!

02



준비는 간편하게
인쇄는 빠르게!

03



누구든 예약 및 방문 후
샘플 인쇄 가능!

